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8월 7일(목) 14:00 ㅣ 보도 일시 : 2025년 8월 7일(목) 14:00**

**‘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’ 1R 오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(이세희, 이다연, 박성현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7일(목) ~ 8월 10일(일) |
| 3 | 장 소 |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 [북(OUT) / 서(IN) 코스]  |
| 4 | 주 최 |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, 광동제약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86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31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윤이나, 방신실, 박현경, 이동은, 노승희, 고지우, 김민선7, 김민주, 이가영정윤지, 박혜준, 박보겸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, 고지원, 성유진강채연, 지한솔, 박성현, 임진영, 현세린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이세희 1라운드 중간합계 8언더파 64타 \*14시 기준 공동 선두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652>

**경기 소감?**

라이프 베스트 스코어가 8언더파인데 오랜만에 8언더파를 쳤다. 즐겁게 플레이했다.

**오늘 잘 친 이유가 있나?**

2주 쉬고 나서 샷 감이 좋진 않았다. 그래서 지난주 ‘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’에서 컷탈락하고 나름대로 감을 다시 찾으려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. 레슨도 많이 받고 타이트하게 준비했다.

**오늘 가장 잘됐던 부분은?**

퍼트가 제일 잘됐다. 샷 때문에 많이 불안해서 자기 전까지도 샷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퍼트가 잘돼서 정말 다행이었다. 샷은 오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.

**선수들이 그린이 까다롭다고 많이 얘기하던데?**

볼이 놓인 위치, 보이는 라인, 한라산으로 인한 착시까지 3가지를 계속 체크했다. 한라산으로 인한 착시가 생각보다 많았다.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플레이했고 잘 통했다고 생각한다.

**바람이나 날씨 걱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?**

어제는 비바람이 정말 심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악조건 속에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은 날씨가 좋다고 느껴졌다. 바람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다.

**남은 라운드는?**

오늘 잘 쳤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 잊고 새롭게 플레이하겠다. 아직 샷이 조금 불안해서 스윙적인 부분에서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을 잘 해내고 싶다.

**◈ 이다연 1라운드 중간합계 8언더파 64타 \*14시 기준 공동 선두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392>

**노보기 8언더파로 경기를 마쳤다.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어땠는지?**
오랜만에 출전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임하려고 했다. 첫 홀부터 버디가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. 샷 감도 나쁘지 않아 계속해서 버디 찬스가 많이 왔고 퍼트도 잘 따라줬다.

**3주간의 휴식기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?**
연습보다는 몸 상태 회복에 집중했다.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고, 경기에서 감각도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것 같다. 전반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풀어갔다.

**오늘은 바람은 어땠는지?**
어제보다 바람이 심하지 않아 클럽을 한두 개 정도 조절하는 수준으로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.

**내일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?**
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, 욕심을 내려놓고 매 샷에 집중하려 한다.

**◈ 박성현 1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\*14시 기준 공동 7위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179>

**경기 소감?**
제주도에 오기 전에 내륙에서 연습 라운드를 돌았는데, 그 경기력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다. 앞으로 남은 3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

**후반 막판에 보기 2개가 나왔다. 아쉬움은 없었는지?**
당연히 아쉽지만, 보기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보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찾는 게 목표였는데, 그게 잘되지 않은 것 같아 그 점이 아쉽다.

**오늘 경기에서 잘 된 점과 아쉬운 점을 하나씩 꼽는다면?**
오늘 안 좋았던 건 아이언 샷 두 개 정도였다. 왼쪽으로 살짝 간 두 샷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. 특히 퍼트 감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, 좋은 라운드였다고 생각한다. 다행히 날씨도 작년처럼 무덥지 않아 모든 게 더 좋았다.

**오랜만의 국내 대회였다. 팬들의 응원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?**
정말 오랜만에 큰 함성과 열기를 느꼈다. 전반 끝날 때 팬들이 너무 흥분하셔서 거의 기절하실 뻔한 모습도 봤다. 그런 감정을 드릴 수 있어 감사했고, 이렇게 열띤 응원에 정말 감사드린다.

**내일 경기에 대한 각오와 주의할 점이 있다면?**
내일도 날씨가 변수일 것 같고, 오늘 아이언 샷이 왼쪽으로 간 걸 보완해서, 그런 샷이 안 나오도록 연습장 가서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.